

『 살아있는 46억년 지구의 역사, 목포 자연사 박물관 』

지리교육과 1학년 서지에

☞ 답사포인트

-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연사 박물관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해보자.
- 목포 자연사 박물관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연사 박물관

1) 자연사 박물관의 기원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귀족들이 그들의 소장품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 후 17세기와 19세기에 걸쳐 대규모의 자연사박물관이 구미에서 경쟁적으로 각국의 수도와 지방의 대도시에 설립이 되었다.

2) 자연사 박물관의 설립 배경

전 세계적으로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은 특히 도시민의 거주조건을 매우 열악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민의 자연 친화적 욕구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바른 환경윤리를 가져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시민들이 자주 자연이나 생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미의 여러 자연사박물관들은 단순히 동·식물의 표본을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연을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기능 그리고 동물들의 생활사를 연구하는 기능을 떠맡고 있다. 유럽에서 생겨난 초기의 자연사박물관들은 왕이나 귀족들의 수집욕을 만족시키는 소장품 보관소에 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중들이 그 표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반에게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과 생물의 서식지 파괴가 도시 환경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면서 서구에서는 생태 복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형 자연사박물관들은 점차 일반 시민들에게 자연 환경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 자연사 박물관의 의미

과학박물관 중 자연계를 구성하는 자료 및 현상, 자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자연사과학 및 자연교육의 입장에서 다루는 박물관이다. 동물원·식물원·수족관과 야외 자연박물관 등도 포함되지만, 건물 내에서 자연자료를 다루는 박물관을 말한다. 보통 생물 및 지학(地學) 자료를 말하지만, 특히 서양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측면으로서의 자연인류학·고고학·민족학 등을 포함시킨다.

4) 자연사 박물관의 종류

(1) 자연사박물관

자연사의 전 분야에 대한 자료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파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는 1억 점 이상의 자료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기구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는 5000만 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며, 3000만 점을 소장하는 대영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 연구 자료의 보고이다.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10만㎡의 연건평(세계 최대) 건물과 함께, 생태 전시 등 생명현상에 관한 의욕적인 표현과 지역사회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스위스의 베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아박물관,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있는 비숍박물관 등은 지역의 자연사를 알리기 위한 것들이다.

(2) 분화된 자연사박물관

동물·식물·지질·광물·고생물 등 자연사 중의 한 분과 또는 몇 분과를 다루는 전문적으로 분화된 것을 말하며, 많은 종류가 있다. 최근 대폭으로 전시를 갱신한 코펜하겐의 동물학박물관(Zoologisk Museum), 마찬가지로 전시방식을 완전히 바꾼 런던의 지질학박물관(Geological Museum) 등은 예로부터 유명하다. 이상은 어느 것이나 원칙적으로 자연사 자료를 옥내에서 다루고, 또 자료는 표본과 현상의 연구결과이지만, 이에 대하여 살아 있는 자료를 주로 하여 옥외에서 다루는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동물원과 수족관 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으나, 다시 병설형의 자연사박물관, 즉 과학박물관 또는 종합박물관의 자연사부문으로서의 그것도 있다.

5) 자연사 박물관의 역할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주로 표본을 토대로 한 분류학과 생태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 흔히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이것은 일방적인 오해이다. 표본연구에 의한 그 실용성을 보면,

보건 및 의약개발, 식량개발, 농업해충퇴치, 임업해충퇴치, 수산업증대, 검역개선, 생태관광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인 면이 많다.

박물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일반대중에게 수집된 표본과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가능한 한 널리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래의 과학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자연 보전과 한정된 자연 자원의 이용에 관련해 이루어지는 각종 결정이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6) 자연사 박물관의 필요성

(1) 생물 다양성 보존

리우환경회의(UN환경개발회의⁴⁷⁾)의 주 의제 중 하나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 는 것이었다.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생물들은 지구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인간에게는 그들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사 박물관 하나를 설립한다고 해서 멸종위기의 종들을 모두 보호할 수는 없지만 이는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노력의 작은 시발점일 수는 있다.

(2) 바이오산업의 발전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유전자기술이다. 각 국의 자연사박물관은 많게는 수억 종 이상의 생물 표본을 보유하고 있다. 이 표본 하나하나를 모두 유전자 기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계 각 국이 생물 표본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목표 자연사 박물관

1) 목표 자연사 박물관 개관

2004년 9월 개관한 목표자연사박물관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47) 인간환경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한 회의. 이 때 정부 대표가 중심이 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일명 Earth Summit)'와 각국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Global Forum'92)'가 함께 개최되었는데, 이를 '리우회의'라 한다. 이 회의의 주제는 '인간과 자연 환경 보전 경제 개발의 양립'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이었으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선언의제21(Agenda 21)·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산림원칙 등을 채택하였고, 지구환경회의는 지구헌장·세계민간단체협약 등을 채택하였다.

경상남도·전라남도 해안일대

의 도시 목포의 명물로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공룡모형, 화석, 식물, 곤충, 조류, 어류표본 등 자연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사, 예술자료가 보존·전시되어 있다.

자연사관에는 세계에서 단 2점만이 발굴 복원된 공룡화석 프레노케랍토스와 콘코랩티, 희귀하기로 유명한 해양파충류 뱀속에 새끼가 함께 보존된 스테놉테리기우스가 전시되어 살아있는 자연사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연생태 표본을 지역생태관에 연출하여 목포만의 특색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문예역사관에는 지역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춤과 음악 등 예향(藝鄕) 목포의 문화예술 세계도 가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았다.



《목포 자연사 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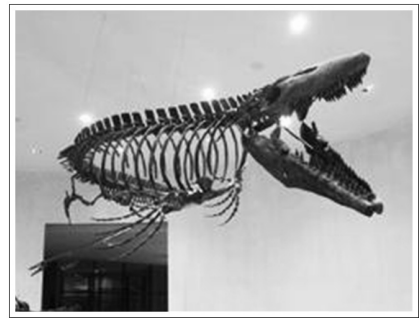
출처:목포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2) 전시실 소개

(1) 자연사관

① 중앙홀

대형 초식공룡 디플로도쿠스를 공격하는 알로사우루스, 모성애가 강한 오비랩티, 트리케라톱스를 위협하는 드로마에오사우루스, 공룡의 기원을 말해 주는 코엘로피시스와 헤레라사우루스, 대형 바다거북 아르케론과 모사사우루스 등이 실제 크기로 역동적으로 연출되어 있다.



《중앙홀의 해양파충류 모형》

출처:목포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② 지질관

지구 46억년의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주로부터 낙하된 운석과 지각구성물질인 광물, 보석 및 암석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최초의 다세포 생명체인 에디아카라 화석부터 신생대 포유류인 코엘로돈타까지 만나 볼 수 있어 지구역사의 다양한 생명체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③ 육상생명 1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의 박제품과 전신골격이 생생하게 재현된 육상생

명관 전시관에서는 대형 코뿔소, 사향소, 늑대 등과 흰꼬리사슴을 사냥하는 퓨마의 박제품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사는 텃새와 다양한 철새를 전시한 조류 디오라마, 인류의 조상을 만날 수 있는 두개골 코너 그리고 한반도 서식종인 곰, 삿, 너구리, 수달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④ 육상생명 2관

지구상에 알려진 90만 여종의 곤충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곤충의 색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전시는 곤충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포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왕자귀나무와 한라산 자생 특산신물인 벌개냉이 등의 목포지역 식물을 분류군별로 전시하였고, 우리나라 온대활엽수와 참나무류를 전시하여 우리나라 숲의 모습을 잘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수중생명관

지구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바다 속 생물과 환경을 제작·전시한 수중생태 디오라마와 2.5m에 이르는 초대형 가오리, 바다의 사냥꾼인 상어와 밍크고래, 뱀머리돌고래 진품 전신골격 등을 전시해 관람객을 바다로 친숙하게 유도하는 공간이다. 신생대에 살았던 12m 상어 메갈로돈의 이빨도 연출되어 있다.

⑥ 지역생태관

우리 나라 서남해안 권역의 자연생태 모습을 재현한 지역생태관으로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어름치 등 다양한 민물어류 16종 1천 100여점을 전시한 담수어류 수족관과 피라미, 송사리, 고둥이 살아가는 생태 터치풀, 서남해안 천연갯벌이 그대로 재현된 갯벌 디오라마가 관람객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⑦ 기증품전시실

김성훈 박사 부부가 평생 수집한 희귀성 해외산 조개류 4,300여점을 민패류연구소장인 민덕기 소장이 미세 조개류 등 1,500여점을 그리고 부경대학교 손민호 박사가 국내산 조개류 500여점 등을 목포시에 기증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기증품 전시실을 마련, 풍부한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전시·연출하고 있다.

⑧ 영상실

박물관 캐릭터인 오비가 박물관 전시실 및 전시품에 대하여 소개한다. 실재를 방불케 하는 스펙터클 영상과 음향으로 신비로운 바다 속 풍경과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 체험을 가능케 해 관람객에게 지구의 경이로움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⑨ 4D 입체영상관

사실적인 입체감, 웅장한 입체 사운드 등 첨단테크놀러지의 결정체, 3D 입체 영상에 물, 바람, 진동의 실시간 특수 효과가 함께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2) 문예역사관

① 수석전시실

남농 허건화백께서 기증해 주신 1,800여점의 수석 중 대표석 100여점을 교체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수석은 우주 삼라만상의 형상을 닮은 기이하고도 신비스러운 형상들로 이루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준다.

② 윤림산방 4대 작품실

호남화단에 남종화의 맥을 창시한 윤림산방 4대 5인(소치, 미산, 남농, 임인, 임전)의 작품이 전시되어 윤림산방일가의 작품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윤림산방은 소치 허련이 1857년 50세에 고향에 돌아와 세운 화실로 2대 미산, 3대 남농과 임인 형제, 그리고 4대 임전 허문으로 계승되어 4대에 걸쳐 5인의 화가를 배출한 대화맥의 산실이다.



《윤림산방 4대 작품실》

출처:목포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③ 오승우작품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자 호남이 배출한 서양화의 거장 오승우 화백께서 기증해 주신 대표작품 100점을 교체 전시하고 있다. 오승우 화백은 한국적 인상주의를 실현한 대표 작가인 오지호 화백의 자제로서 2대에 걸쳐 호남의 서양화맥을 이어오고 있다.

④ 문예역사실

목포 문화예술을 문학, 무용, 미술, 국악, 음악, 공예 등으로 세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사 자료를 전시함으로써 호남 제일의 예향도시 목포의 문화적 뿌리를 찾고, 근대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이끌어 온 목포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전시공간이다.

⑤ 화폐 전시실

청암 김동섭 선생 부부가 30여 년간 세계 각국의 고(古)화폐 및 현용 화폐 7,000여점 중 대표 화폐를 전시하고 있다. 인류 최초의 조개돈과 철전, 최대 금·은 주화 및 별전과 균표, 도자기돈 등 세계 희귀 화폐 등이 전시되고 있다.

3. 세계의 자연사 박물관

1) 영국 국립 자연사 박물관

- (1) 목표 - 과학 연구, 전시, 교육, 방문자 관리
- (2) 연구주제 - 생물 다양성, 환경 평가, 생물자원, 광물 자원, 인간의 건강, 인간의 기원
- (3)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대혁신
 - ① 박물관 문화의 변화 - 보수적 태도를 버리고 대외적,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변화 시도
 - ② 소속 정부 부서의 이관 - 교육과학부로부터 국가유산부로 이관
 - ③ 박물관 조직의 변화 - 지질 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에 흡수
 - ④ 연구 활동의 변화 - 영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영, 연구, 전시 면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였고 국제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표본이 되었다.

2) 미국 국립 자연사 박물관

- (1) 연구 - 열대 생물다양성 조사, 카리브 산호초 생태계 조사 사업, 삼림 분단의 생물학적 동태, 육지생태계의 진화 연구 사업,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사업, 곤충 표본망 사업, 북미 곤충 전산화 계획, 국가식물생식질 시스템(National Plant Germplasm System) 사업 등
- (2) 전시 - 인류학, 생물학, 지질학에 관한 주제가 전시,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
- (3) 교육 프로그램 - 발견실, 자연 연구자 센터, 강당·교실·유치원 프로그램, 박물관 교실 여행, 공개 강의, 영화 상영
- (4) 결론 - 세계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미국의 문화적 지주와 미국 국민의 긍지로서 계속 역할하고 있다.

3) 프랑스 국립 자연사 박물관

- (1) 역사 - 1635년 왕립의용식물원으로 창립, 1739-1788년 사이 자연과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발전, 1793년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발전, 1889년 동물학관 설립, 1935년 식물관 설립, 1937년 동물학 공원 창설
- (2) 행정과 구성 - 행정위원회가 운영; 26개소 연구소와 행정, 박물관학, 출판, 문화로 구성
- (3) 연구 - 자연과 문화의 다양성 비교, 연구
- (4) 표본 - 표본의 전산화 작업과 활용
- (5) 동·식물상 사무국 - 각종 생물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전산화 작업 수행
- (6) 교육 - 안내훈련과정, 박물관 학급, 월례 특강, 야외 탐사

- (7) 출판 - 「국립자연사박물관 연구보고」, 「국립자연사박물관 논문집」, 「물체와 세계」
- (8) 도서관 - 중앙도서관, 인류박물관 도서관, 연구소마다 해당 전문 분야에 관한 도서실
- (9) 전시 - 26개 연구소 가운데 절반이 소장 표본의 일부를 활용해 전시
- (10) 전시의 일대 확장 - 환경의 다양성 속에서의 생물종의 다양성, 생명의 역사, 진화의 이론과 메커니즘, 인간과 자연

4. 맺음말

자연 유산들의 훼손이 날로 심각해지고 각종 기후 변동으로 인한 식물 종 단순화로 인해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나라마다 생물자원의 주권이 인정됨으로써 죽어있는 생물도 표본으로 남기면 후대의 귀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종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자연사 박물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인터넷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현재 세대에게 자연사 박물관은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재 공간으로,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의 경우 자연사 박물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으로 설립하여 관리해 주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변한 국립 자연사 박물관 하나 조차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자연사 박물관의 수나 시설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 또한 외국의 자연사 박물관은 자체적인 연구와 출판 활동도 활발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연사 박물관은 단지 전시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의 경우 자연사 박물관은 하나의 살아있는 즐거운 배움터로써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사 박물관은 단지 따분하고 지루한 장소로만 인식되고 있다.

자연사 박물관을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사 박물관은 그 나라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의 기반으로서,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으로 자연사 박물관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 생각해보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중 유일하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들이 소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자연사 지식제공의 한 몫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두드러진 자연사박물관은 지난해 문을 연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이다. 그동안 이화여대나 한양대, 경희대, 한남대 등 대학 차원에서 운영돼 온 자연사박물관이 고작인 게 현실이었다. 2003년, 서대문구에서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이후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분당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생겨났다. 강화에 있는 은암자연사 박물관이나 공주의 지당세계만물박물관, 양평의 자연생태박물관, 포항의 경보화석박물관 등은 개인이 설립했다.

- 중략 -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의 5000만점,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3000만점에 비교가 안 되는 몇 만점의 전시물에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목포자연사박물관 등에는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다. 자연사를 배울 수 있는 마땅한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4년 개관한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주말과 휴일 평균 이용객이 3000명에 달하고 평일에도 15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배기동 한양대 박물관장은 “자연사박물관은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고고역사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있어야 할 사회교육기관이자 차세대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며 “자연의 모든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 광주신문 김인순 기자

- 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연사 박물관이 갖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 이병훈 / 2000 / 자연사 박물관과 생물다양성 / 사이언스북스

《참고사이트》

-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
- 자연사 박물관 연구 협회(<http://naturekorea.org>)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